

양심 내시경

지난 가을이다. 밭치에 사는 딸네미가 사과 한 소쿠리를 들고 왔다. 청송 주왕산 단풍놀이에 갔다가 돌아올 때 노변에 있는 직거래장터에서 샀다고 했다. 그런데 맛도 보기 전에 속았다고 씩씩거렸다. 알이 굵고 때깔도 고운지라 한 상자를 차에 실었는데 집에 와서 끄집어내어보니 밑에는 작고 못생긴 사과들로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다.

황당하게 당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엇그제다.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구입한 ‘카우보이 벨트’가 광고에서 본 물건과는 달리 시중에 파는 싸구려 제품이 와서 속을 끓이고 있던 중이었다. 부녀가 나란히 ‘속박이’를 당했다는 사실에 슬며시 부아가 치밀었다. 속박이란 보이는 바깥쪽만 멀쩡한 물건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그보다 작거나 부실한 물건을 두는 일을 일컫는다. 겉과 속이 다른 속박이, 문득 추억 소환의 시동을 걸었다.

내 유년시절, 아버지는 대구능금의 고향, 반야월에서 대를 이어 사과 농사를 지었다. 대구하면 사과요, 사과하면 대구라고 할 만큼 명성이 높았던 대구능금도 이제 열대야를 피해 문경으로 청송으로 북상한지 오래다. 70년대만 해도 금호강을 낀 우리 동네는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았지만 부농이라면 과수원 하나쯤은 갖고 있었다. 가요계의 거목 패티김이 부른 ‘능금꽃 피는 고향’의 발원지로 봄이면 들녘은 새하얀 사과꽃 일색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아름드리 사과나무 한 그루면 쌀농사 서마지기 소출과 맞먹는다며 아버지는 사과 농사에 정성을 쏟았다.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내고, 소독을 하고, 적과를 해주며 사철 과수원에 땅거미처럼 붙어살았다. 부지런한 아버지의 땀을 양분으로 실하게 열매를 키운 과목은 가을이면 소녀의 볼 같은 미인능금을 주렁주렁 매달았다.

동네에서 제일가는 명품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아버지의 몫이라면 그 사과를 판매하는 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사과 수확이 시작되면 마을 앞 국도변에는 띄엄띄엄 노점이 열린다. 말하자면 직판장인 셈이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허름한 천막아래에 사과 궤짝을 널어놓는다. 그 긴 행렬 끝에는 내 어머니도 있다. 매

연 속에 종일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호객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공판장에 실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금을 받을 수 있어 노점은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진다. 다행이라면 영남의 관문으로 통하는 국도는 사철 차량들로 붐비었다.

오후 한나절,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떨이를 외친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반이나 남아있다. 어떤 날은 해질녘까지 팔아도 재고가 남았다. 하루 이틀도 아닌지라. 내 머리 속에는 물음표 하나가 따리를 틀었다. 왜 손님들은 유독 어머니의 사과만 외면하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도 동네에서 우리 사과가 최상품이라고 거품을 물었는데…….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우연이었다.

“무슨 여자가 저토록 우매할까. 혼자 고매한 척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담?”

“누가 아니라, 길거리 장사치 주제에 양심이나 의리만 찾다가는 밥 굶기 딱 십상이지. 하긴 우리가 뭐 썩은 감자라도 넣었남? 저리도 융통성이 없으니 자신만 힘들지”

설마 했는데 우리 집 좌판을 힐끔거리는 걸로 보아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내 어머니가 왜?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사에 깔끔한 성격이라 차림새가 남루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입담이 부족해서일까. 천만에. 고전소설을 많이 읽어 재치 있는 농담으로 우리를 언제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답은 없고 머리만 복잡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있었다. 팔다 남은 사과가 마음에 걸렸으리라.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늘 하는 일인데”

“손님들은 왜 우리 집 사과만 외면할까요?”

“글썩다. 어미의 장사 수완이 부족한 탓이겠지”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두어 해 후다. 해를 거듭할수록 손님들이 하나둘 어머니의 좌판으로 몰리더니 급기야 종일 팔아야할 물건이 한나절이면 동이 났다. 돈보다 정직을 택한 승리였다. 끝내 어머니는 침묵했지만 손님의 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돈독이 오르면 약아지기 마련이다. 뜨내기손님이라고 고객을 얕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인물이 좋은 사과는 위로 올리고 속에는 작고 못난 사과를 넣는 술수를 부렸던 것이다. 농심을 믿고 확인하지 않는 선량한 고객의 양심을 악용한 것이다. 소먹이로 줄 사과를 최상품으로 팔아치웠으니 돈주머니야 두둑하겠지만 여행길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 심정이 어떨겠는가. 믿던 도끼에 찍힌 발등은 훨씬 더 아리고 아프다.

어머니인들 그 알량한 수법을 왜 몰랐겠는가. 하지만 목전의 이익에 흔들릴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끝집은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퍼져 판로로 이어졌던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우리 형제들이 양심 불량을 할 때에는 꼭 때로 다스리던 속내를 그제야 읽을 수 있었다. 내가 글로벌한 청렴을 어머니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고 계셨다. 몸으로 때우는 직업의 숭고함과 낮은 자세로 투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미학을 불립문자로 남기신 어머니, 지금은 별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

넉넉했던 농촌 인심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 무논을 뒤진 듯 뽕 뭉은 고무신을 신고 방금 잡아왔다고 호언장담하는 할머니의 미꾸라지도 알고 보면 양식이고, 조상 제사상에 올리려고 남이 아닌 당숙모의 가게에서 믿고 산 고사리도 쓰고 보면 중국산이라고 한다. 이뿐이라. 가짜 고춧가루, 가짜 달걀, 가짜 참깨, 심지어는 가짜 의사에 짝퉁 미인까지…….

이처럼 우리 사회는 속박이로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근간에는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무일푼의 건달이가 일천억 대의 재산가로 행세하며 유명인사를 상대로 116억 2천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으로 속박이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아빠 찬스에 엄마 찬스까지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을 쌓거나 없는 표창장을 위조해 남의 기회를 빼앗고도 아닌 척, 정당한 척 우기는 척병환자들 역시 속박이의 다름 아닐 것이다. 양심을 버린 술수로 따낸 감투는 도둑질한 물건과 무엇이 다르랴. 생각만 해도 구린내가 난다.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은 나 역시 가식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언제 한번 당당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으로 여기고 속을 숨긴 채 살아온 근성 때문이리라.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하는 만능 부하로 살았다. 그렇다고 속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딘가 모르게 억눌리는 감정, 그것이 양심과 청렴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다는 진리를 은발이 성성해진 지금에야 읽는다.

양심을 저버리는 속박이, 분명 남을 속이는 일로 범죄이고 부정부패다. 불신을 낳는 이 문화는 온라인 세상일수록 더욱 활개를 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녹아 있지만 누구도 부패라고 여기지 않는다. 서로 속이고 속아주는 게 미덕인양 말이다. 이쯤 되니 약삭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직한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처럼 멍청한 사람으로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이젠 시류에 따라 청렴도 진화했다. 공금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공직자가 나랏돈을 떼먹는 부조리는 옛말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 금지 역시 과거의 청렴이 되었다. 지금은 법에 앞서 양심선언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직에의 용기, 정직의 능력과 행복을 덕목으로 하는 사고의 변화가 곧 청렴의 척도가 된 것이다. 정직은 마음의 헌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상대의 귀와 눈에 거슬리는 농

담과 장난까지도 갑질이 될 수 있고,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부정부패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붉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몸쓸 병이라도 걸렸는지 수시로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내시경을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켜야 할 양심은 살피지 않는다.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 양심을 현 신짱처럼 버리고도 마음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요즘이다. 소화기관을 들여다보듯, 이제 양심의 내시경으로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볼 일이다. 양심을 좀먹는 비양심의 암세포는 과감하게 도려내어야 한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질 수 있다면, 돈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속박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폭염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듯,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도 청량한 바람 한줄기 불어오기를 소망해본다.